

光日 인터뷰

광주비엔날레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에 듣는다

“고품격 전시만이 세계적 비엔날레 만든다”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가 국내외 미술 관계자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이다. 실험성 강한 젊은 미술작가들을 대거 초청하고, 세계비엔날레 사상 처음으로 미술담론장인 '글로벌 인스티튜트(Global Institute·26~27일)'를 개최, 국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대담=박진현 문화생활부장

-개막 20여일째를 맞은 2008 광주비엔날레에 대한 국내외 언론들의 평은 일단 긍정적이다. 2008 광주비엔날레를 치러낸 소감을 말해달라.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은 (나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 유능한 재단의 전시시스템들과 의욕적인 큐레이터들과의 협업을 통해 특별한 어려움 없이 비엔날레를 준비했다. 비엔날레 준비를 하면서 창설 13주년을 맞은 재단의 역량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광주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됐다.

역사적 관점에서 '5월정신' 반영

-개막 한달 전부터 광주에 체류하며 전시를 기획했다고 들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광주생활을 들려달라.

▲광주는 '예술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예술적 분위기가 묻어나는, 매우 흥미로운(intriguing) 도시다. 비엔날레 전시관 뿐만 아니라 도심을 거닐다 보면 시민들이 예술과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외국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 중의 하나가 음식인데 광주에서는 이런 걱정 없이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특히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계장과 비빔밥이 맛있었다.(웃음). 광주 사람들이 보내준 친절은 잊을 수 없다. '세븐일레븐'에서 물 한병을 사더라도 따뜻하게 맞이해준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평소 5·18 관련 서적을 읽는 등 관심이 많다고 들었다. 광주 출신이 아닌 해외 감독이 5·18을 재해석한 점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 5·18 정신을 표현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광주 5·18은 한국의 역사를 넘어 이미 세계적인 역사가 됐다. 현대미술의 정체를 보여주는 비엔날레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5월을 조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해 민주화 운동 등 정치적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10여년간 광주 향정을 접

한 후 5·18에 대한 서적과 자료들을 보며 공부했다. 미국 독립혁명, 파리혁명, 광주 항쟁 등은 비록 시대는 다르지만 자유를 향한 시민들의 열정은 같은 색깔이다.

광주시민 예술적인 삶에 감동

-세비아비엔날레, 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 카셀도큐멘타 등 그동안 유명 비엔날레들을 주로 거쳤다. 광주와 인연을 맺기 전 광주비엔날레를 어떻게 생각했나.

▲광주비엔날레에 대해서는 재단의 이용우 상임부이사장 등 많은 미술계 친구들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1990년 이전 비엔날레는 대부분 베니스, 상파울루 등 대도시에서 개최됐지만 1990년 이후에는 아시아 등 제3세계의 중소도시에서 경쟁적으로 생겨났다. 지난 1995년 한국의 지방도시에서 창설된 광주비엔날레는 이같은 국제 미술지형의 판도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행사여서 관심있게 지켜왔다. 특히 5월항쟁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는 다른 비엔날레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유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감독 제의를 받았을 때 선뜻 수락한 것도 내 자신의 성취감 뿐 아니라 역사적인 미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주제없는 전시라는 이유로 개막전부터 큰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비엔날레를 둘러본 일부에서는 '제3세계의 정치학'을 내세운 '주제있는 비엔날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광장중 중요한 쟁점이다. 주제가 없다고 해서 '주제의 부재(absence of theme)'를 의미하지 않는다. 현대미술은 매우 다양한 층위(layered)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주제가 없다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관점과 관심사에 따라 (광주비엔날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 타조가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다른 곳을 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출품작들이 제3세계, 아프리카의 현실을 다뤘다고 무조건 '제3세계'라는 프레임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흑인이 모두 아프리카, 제3세계를 대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낡은 스테레오. 한국이 아시아에 속해 있지만 '아시아=한국'



광주일보가 지난 24일 광주비엔날레 재단 회의실에서 마련한 특별대담에서 오쿠이 엔위저(왼쪽) 감독이 광주비엔날레의 발전 방안 등을 이야기 하고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오쿠이 엔위저 예술 총감독은

1963년 나이지리아 출생으로 현재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학장을 맡고 있다. 코넬대학 아프리카 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아프리카 현대미술 저널'의 창설 편집장이다. 카셀도큐멘타(1998~2002), 제2회스페인세비아비엔날레(2005~2007), 제2회요하네스버그비엔날레(1996~1998)의 예술 감독을 역임했다.

주요 기획으로는 런던 테이트모던의 '센츄리시터', 스웨덴 우메아미술관의 '거울의 경계', 뉴욕 린즈 미술관과 미네아폴리스 워커아트센터의 '글로벌 개념주의' 등이 있다. 피터 노튼 기획상, 독일 사진 출판상, 컬리지 아트어소시에이션의 '프랭크 저 및 마서' 비평상 등을 받았다.

는 재단과 큐레이터, 도슨트, 작가들이 하나가 되는 공동행사이자. 예술감독인 내 생각과 아이디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쿠이 전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단과 큐레이터, 작가들이 화음을 연주해내는 팀워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재단·큐레이터·작가 한마음 연출

-광주비엔날레는 수많은 비엔날레들과 경쟁구도에 놓여 있다. 광주비엔날레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유수 비엔날레로 성장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부산, 상하이, 요코하마는 (광주에 비해) 좋은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가 대회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어떤 전시를 만들어 내느냐가 중요하다. 전시의 질이 좋아야만 관람객을 불러 모을 수 있다. 다른 비엔날레와 차별되는 고품격의 전시를 기획하는 것만이 광주비엔날레가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다. 전시의 질이 담보가 되면, 관람객들은 다음에 치러질 광주비엔날레를 손꼽아 기다린다.

정리=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은 아니지 않나.

스타 작가들만의 무대 아니다

-가물급 작가들이 없어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타 작가에 의존하던 기존의 비엔날레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일반 관람객들은 자신이 모르면 유명 작가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올림픽이 스타선수들만의 스포츠 행사는 아니지 않나. 광주비엔날레는 베니스 비엔날레와 다른 성격의 전시다. 큐레이터의

아이디어와 비엔날레의 목적에 맞는 작가를 불러오게 중요하다.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스타작가를 불러오자고 말하는 것은 광주를 무시하는 발상이다. 국회가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의회 목소리(parliament voice)'를 내는 것처럼 광주비엔날레도 소수 스타작가들의 독무대가 아닌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오쿠이에 의한, 오쿠이를 위한, 오쿠이 만의 전시'라는 시각이 있다. 작품은 보이지 않고 오쿠이 감독만 보인다. 이것은 지적에 동의하는가.

▲'오쿠이비엔날레'라는 말은 맞지 않다. 비엔날레

법원경매 전문 GG경매컨설팅(주) (법원 경매입찰장 옆) ☎ 062-226-0047 H·P 010-3895-7800 명석한 권리분석, 명쾌한 명도, 명확한 수익성 분석에 의한 재테크 전문상담

초 고유가시대 난방온수 비용의 근심걱정을 해결해 드립니다! 기름값 대비 60~80% 절감효과 최우수 보일러 경동, 일본으로 수출하는 대성! 생산공장 가격으로!!! 딱 1개월 특별 설치

Table with 6 columns: 난방면적(평), 보일러용량(리터), 보일러용수기(kw), 한전 불입금, 생산공장 가격, 한전대리점 가격, 한전불입금포함 소비자가격. Rows include 23~27(7), 42~47(13), 49~56(16), 59~69(20).

심야전기보일러 구입 신청시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 지금 전화한통이면 설치완료 ● 목돈이 없어서 망설이는 분 ● 신설치후 최대 36개월 분할 납부 가능

아직도 비싼 기름으로 난방을 하십니까? 난방온도 60°C 기름보일러 사용가정 월난방비용 400,000~600,000원 이상 사용가정 난방온도 90°C 심야전기보일러 사용가정 한달 난방비 약 8~10만원이면 OK



속보 주거지역 급변내 심야전기 용량제한 폐지 *9월1일자로 69㎡이상(심야전력 25평)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축열식 심야 전력 호당 공급 용량 제한치 변경. 1차 : 시행일 2008. 3. 3(월) 전수분 부터 변경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50kw까지 공급 변경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2차 : 시행일 2008. 9.1(월) 전수분 부터 변경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30kw까지 공급 변경후:순수주거용 시설에 한해 호당 20kw까지 공급

심야보일러란?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밤10시~아침8시까지)에 남아도는 값싼전기로 난방에 필요한 온수를 90°C까지 미리 데운 대형보온용 온수저장통에 저장한 후 하루종일 내내 지속적으로 난방하는 것을 말하며 심야 전기요금 은 일반전기, 기름값의 1/4에 불과한 저렴한 합인제 요금을 적용합니다. *심야전기요금은 기본요금 및 누진세가 없습니다. *심야전기요금은 값싼 전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므로 값이 쌉니다. ◎ 생산공장 - 전문가가 직접 원역시공 - 설치고객 ◎

한국전력공사협약제품 경동 대성 심야전기사업부 연/중/무/휴 주·야 상담대기 무료상담 080-909-0088 상담소장 010-9469-9373